

2022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길체험 프로그램 (3) 도순초등학교

비 내린 초록숲서 다양한 식물·곤충 만나

비 마중 나온 개구리와 만난 학생들 “우와” 탄성 뱀·달팽이 “신기해요”... 나방·개구리 채집 관찰

제주도교육청과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2022년 숲길체험 프로그램이 14일 한라산 동백길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체험 프로그램은 도순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 16명이 참여했으며, 자생식물연구회 김명준 대표가 강사로 나서 '제주의 식물과 곤충'을 주제로 생태 교육을 실시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날씨에도 숲으로 나온 학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았다.

학생들은 먼저 배추흰나비와 박제된 매미를 관찰하며 제주의 곤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말매미, 유지매미, 애매미 등 모양도 크기도 다른 매미를 가까이에서 직접 만져보며 매미에 대한 호기심을 눈으로 확인했다.

김명준 강사는 “도시나 집 주변에서는 최근 매미를 보기가 어려워졌다. 살충제·제초제 사용 등으로 땅 속에 있던 매미 유충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곤충 채집을 위한 채와 통을 받아 들고 곤충 채집에 나섰다. 마침 주변 나무 한 그루에 학생들을 기다린 듯 수많은 노랑가시나방들이 앉아 있었다.

김 강사의 시범을 따라 학생들은 연신 채를 휘두르며 노랑가시나방을 잡았다. 채에 잡힌 나방을 조심스럽게 채집통에 옮겨 친구들과 함께 관찰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치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캐릭터 같다는 한 학생의 말에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었다.

채집한 노랑가시나방을 다시 나무로 돌려보내 준 뒤 학생들은 한라산 둘레길 하원수로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 나무와 곤충들을 만났다.

학생들은 수로길을 풀쭉풀쭉 뛰어들어다니는 개구리와 인사하고 지난 밤 오소리가 다녀간 배설물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좌우로 꿈틀거리며 연신 허를 내밀던 작은 뱀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14일 한라산 동백길 일원에서 진행된 2022년 숲길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순초등학교 학생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도영기자

김 강사가 채집해 손바닥에 올려둔 작은 개구리를 본 한 학생은 “이제 빨리 살려줘야 해요. 주변에 암마가 있을 거예요”라고 다급하게 말하기도 했다.

5학년 김준성 군은 “개구리를 직접 잡아 본 것은 처음이라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작은 웅덩이에 놓아줬는데 건강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나무 주변에서 집게벌레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달팽이의 느린 걸음을 가만히 바라보며 숲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관찰했다.

5학년 강예린 양은 “뱀을 실제로는 처음 봤는데 새끼 뱀이라 귀여웠다”며 “비 내린 초록숲에서 여러 곤충을 볼 수 있어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동근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흠을 만지거나 곤충을 채집해보는 경험을 하기 어려운데 다양한 곤충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 즐거워한 것 같다”며 “학교로 돌아가 숲에서 만난 곤충과 식물들을 기록하는 수업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5일 금요일 ~ 6월 17일 (9월)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26℃, 낮 최고기온은 29-30℃로 예상된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외출 시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주	60%
70%	성산	60%
70%	고산	60%
70%	서귀포	60%

해돋이 05:35	달뜨기 21:26
해질 19:45	달지기 06:47
물때 만조 11:22	간조 06:17
00:00	18:03

식중독지수 경고	자외선지수 보통
----------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5/31℃
모레	흐림	26/31℃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한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4·3유적지 체계적 보존·관리 강화도, 89억 들여 도내 유적지 12곳 정비 추진

제주도는 4·3유적지 정비 종합관리 계획에 따라 89억9000만 원을 투입, 올해 1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9년 주요 4·3유적지 30개소를 정비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보존·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9억9000만원을 투입 ▷정제공장 옛터 위령공원 조성(2019-22년) ▷중문4·3기념관 조성(2021-22년)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공사(2021-22년) △백조 일손 역사기념관 건립공사(2022년) 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제공장 옛터의 경우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1~2단계 사업으로 기반정비 및 조형물·위령제단 설치를 지난 2020년까지 완료했으며, 3단계 사업으로 올 상반기 역사기념관 준공에 따라 위령공원과 전시물

을 하반기에 설치하여 올해 말에 개관할 예정이다.

또 4·3당시 중문주민 학살터 인근의 옛 보건소 건물을 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과 전시물 제작·설치에 8억원을 투입해 중문4·3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100여 명의 희생자를 안장한 백조일손지의 역사기념관에 10억원을 투입, 올 하반기 조성 완료 목표다. 정비비 4·3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현장 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또 '다랑쉬굴'과 '도령마루' 보존을 위해 2022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토지매입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민선 8기 공약사항에 포함된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등 공약 수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메신저 피싱 중계소 역할 중국인 용의자 구속 송치

제주에서 메신저 피싱의 중계소 역할을 한 중국인들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메신저 피싱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15대를 들고 다닌 혐의로 지난달 검거됐다.

A씨 등의 휴대전화에서는 수만건의 메신저 피싱 관련 메시지 발송 내역이 확인됐다. 경찰은 미상의 총액이 해외 컴퓨터와 A씨 등 2명이 소지하던 국내 휴대전화를 연동해 메신저 피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송은범기자

“여름방학 전후 다중시설 이용 자제를”

도교육청, 학생 확진자 증가에 방역대책 안내 방학 중 생활지도 강화·원격수업 탄력 운영 등

여름방학이 코앞인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14일 각급 학교에 특별 방역 대책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후 오순문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학 이후 학교방역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역대책에서 방학이 다가오는 것에 맞춰 생활지

도 강화를 안내했다. 확산세 지속을 감안해 방학 전은 물론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밀집하는 다중이용 시설이나 핫플레이스 방문을 자제하도록 했다. 도내 초·중학교는 방학식을 기준으로 이르면 15일부터, 고등학교는 18일부터 방학이 시작되고 19~20일에는 다수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학교의 경우엔 학교장이 탄력적

으로 학급 단위 원격 수업을 결정해 도교육청 소관 부서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등교 여부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두 학급 이상 모이는 합동수업 지양 등 학급 단위별 교육 활동을 권장했고 대면회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제주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리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기존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 8 회 월대천 축제

개막식 7.23.(토) 17:00 월대천 잔디광장

2022. 7.23.(토)
2022. 7.24.(일)

외도동 월대천 일원

장기자랑대회 7.24.(일) 12시 40분

- 참석대상 : 각마을별 1인(10명), 자생 단체별 1인

- 사전접수

맨손 장어잡기 체험 7.24.(일) 15시 10분

첫째날 (7월 23일 토요일)

프로그램

- 어린이 그림그리기
- 어르신공연 (웃놀이, 투호)
-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공연
- 길트기 풍물놀이
- 초청공연(탐페라 아리연)
- 어린이 시범공연(합기도·태권도)
- 월대천 연꽃등 띄우기

둘째날 (7월 24일 일요일)

프로그램

- 외도물길20리 플로깅 및 보물찾기
- 나팔부대
- 난타공연
- 민속놀이(제기차기)
- 장기자랑 대회
- 초청공연(프로마술사 김민형)
- 맨손 장어잡기 체험 (외도물길20리 참여 완주자)
- 폐막식

종일프로그램

- 자리테우 체험
- 클린환경 체험교실
- 페이스페인팅
- 서예전시 및 가훈 써주기
-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 어린이 소방체험
- 미니할인점
- 외도동 추어의 사진전
- 가족공예, 나만의 그림특만들기
- 핸드메이드 공예
- 쫄물락 비누 만들기
- 장애인지원협의회 미니장터
- 먹거리 장터 운영
- 셀프 포토존 운영

주최 :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 : 월대천축제추진위원회 (외도동 자생단체 및 마을회)

- 본 프로그램은 기상 및 내부사정으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